

家族生活設計의 概念化를 위한 序說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Creative Family Life Planning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池英淑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 Young-Sook, Chi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가족생활설계를 위한 접근 |
| II. 생활설계의 개념설정배경 | VI. 가족생활설계와 Life-style |
| III. 가족생활설계의 필요인식 | VII. 맺는 말 |
| IV. 가족생활설계의 기본관점의 수용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basic concept on the creative and better family life planning.

This planning afford promise of implement about the family life tasks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of family life problems or issues.

The conceptual focus are on the values, interdependence, wholeness, adaptation and balance of human life.

This study provide of the basic about the social education program and family life education for quality of life.

I. 머리말

인간은 한정된 생애를 살면서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래서 “노력하는 삶은 아름답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활을 설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활설계는 앞으로 예측되는 변화에 대처하고 보

다 나은 미래의 생활상을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주체적 노력이며, 현재를 방향짓는 자기인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생활설계는 가족원 그리고 생활이라는 공동체로서의 복지를 향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관점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활요구에 대한 올바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생활

을 통합적으로 관망하는 지적 활동을 통해 목표를 조정하고, 개인과 가족사이에서 균형과 통제하는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생활설계는 미래지향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흔히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계획이 없는 생활은 목표가 없는 것이고, 목표가 없는 삶은 자기삶이 될 수 없으므로 개인 및 가족은 충실한 자신의 삶을 가꾸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생활설계의 개념설정 배경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일생을 살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때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좋은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치적 규명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충실하고 안정된 생활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한편 한 개인이나 가족은 일정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동적 존재로서 개인의 발달이나 가족주기에 따라 혹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창조해야 하며 균형상태를 추구해야만 충실감도 안정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이론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생활설계의 입지이다.

생활이란 생명, 생존을 포함하는 일상적 행위의 통합체로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 생활체이고, 가족은 그 주체이다. 개인 및 가족은 생활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존재방식을 결정한다. 그것은 생활과 관계되는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상호관련짓느냐와 관계되는 것이고, 그 관계성의 범위는 오늘날 확대되고 두한한 연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생활을 설계한다는 것은 생활주체와 관련하여 실제적이어야 하며, 사회, 경제, 문화, 규범과의 관계에서도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생활방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슷한 용어로서 계획이 있는데 엄격히

보면 계획과 생활설계는 동의어는 아니다. 계획이 부분 부분(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생활설계는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혹은 실행해야 하는 각각의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로 구조화하고, 방법을 구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조립하여 일으켜 세우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획보다는 다면적이고 균형과 조화가 더욱 필요한 것이 생활설계의 개념이다. 즉, 생활설계란 통합적 견지에서 세워진 계획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경영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한편, 계획과 생활설계 모두가 의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쓰인다고 하겠다.

생활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고 있다.

岡村(1983)는 가정생활설계란 장래에 예상되는 사회에 있을 새로운 가정의 미래상(未來像)을 향하여 주체적인 자신을 방향짓기 위한 운영계획이라고 하였다. 같은 의미에서 三東純子(1985)는 3가지 기본성격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생활변화에 대응 하고자 하는 노력, 둘째 생활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성, 셋째 변화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계획성을 제시하였다.

山本(1983)는 특별히 가족계획,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가족의 생활주기는 출생, 성장, 성숙, 노쇠, 사망으로 이어지는 자연현상의 면도 있지만, 가정은 결혼연령, 가족형태, 가족계획, 경제, 생활style, 여가 등 인위적인 의지에 의해 행하여지는 면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설계는 부부의 이상(理想)과 희망을 짜맞추어서 가족의 미래상(未來像)을 상정(想定)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설계라고 하였다.

田辺(1968)는 생활설계는 “일생을 보다 안정되게 계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다.”라고 하였고, 今井(1971)는 생활설계를 위해서는 생활의全體性(totalism)에 대한 시각과 이론전개를 술회하였다.

그 외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각 개인 혹은 가족은 자기가 지배하는 생활자원을 확보하고, 보다 풍요롭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의 자원을 미래의 환경에서

도 적절히 계획 배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와 같은 노력을 총칭하여 생활설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설계의 개념에는 현재의 생활로부터 미래의 생활환경을 주체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노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및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생활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개념에는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한정된 소득으로 미래의 생활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그 발상의 토대는 상해, 질병, 노령, 실업과 같은 인생의 불의와 예측되는 자녀교육에 대비하여 장래 생활을 보장받으려는 현재의 지불계획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생활이라는 것은 경제문제를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경제면에 국한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생활설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 개념 속에서 담아야 할 의미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생활은 다면적이고 복잡한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이 내재된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설계란 앞으로 예측되는 생활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미래생활상(未來生活像)을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의도적 활동이자 노력이고, 이것은 충실하고 안정된 생활조성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주체의 형성”이다.

생활주체 형성은 발전적 자기준비를 위해 필요하고, 나아가 가족적 사회적 발돋움을 위한 모든 생활인의 공통적 과제가 된다. 이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가족은 어떠한 생활가치를 가지고 현재를 조명하고 있는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와 표준을 만들고 그 결실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 생활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이상과 같은 개념적 시각에서 볼 때 가족생활설계는 가족생활운영에 대한 과학적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 경험적, 규범적 입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 생활경영의 일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가정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활설계를 한다는 것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고, 현재 생활을 방향짓는다는 점에서 생애교육 혹은 성인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가족생활설계의 필요인식

가정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원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행복의 실현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이 조화롭고 안정될 때 가족원은 안락함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그의 주된 기초는 가족간의 인간관계와 가정경제의 안정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인간관계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가치관, 생활태도, 적절한 생활공간, 생활물자, 조화로운 성역할 등 많은 요소들이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휴식하며 안정된 소득이 있음으로서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요소마저도 가정내외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 및 가족은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과 새로운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1. 가정생활의 내적변화에 따른 필요성

첫째, 가정생활의 주체는 가족이고 가족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각각의 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의 계단을 밟는다. 이러한 생활주기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생활설계는 가족(원)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건전한 가정은 가정의 주요 기능들이 잘 수행되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들이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제몫을 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가정의 고유기능으로서 심신의 안정, 자녀의 출산과 교육기능만 생각해 보더라도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고 의도적인 노력과 계획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정생활은 연속성, 경과성, 결과의 누적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즉 연속되는 생활속에서의 결과는 먼 훗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가정생활은 연습이 아니며 시행착오적 생활로 인한 결과

의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실현방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가정생활 중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적, 경제적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생활은 훨씬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립적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2. 가정의 외적변화에 따른 설계의 필요성

① 경제환경의 변화

산업사회의 눈부신 발달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반면에 소비자의 욕망을 끝없이 부추기고 있고 이에 동승하여 credit-card 나 할부의 보급은 현금 없는 사회를 진행시키고 있다. 현금출납을 수반하지 않는 소비환경은 무엇보다 현금지불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여 지출이 증가 내지 과소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경제계획, 소비습관, 소비패턴에 대한 가족들의 합의된 설계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issue이다.

② 직업생활의 변화

현대사회의 직업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변화는 여성의 사회진출이고(1993 : 47.2%) 그 가운데 기혼 여성의 취업률(47%) 증가는 주목 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러한 맞벌이 가족의 증대는 가족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의 생활의 틀을 새롭게 조정하는 생활설계를 필요로 한다. 또 직업에 따른 이동이 증대되면서 생활패턴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대의 가족생활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직업을 고려한 생활설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와 재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에 따른 설계의 필요성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종래의 집합적이고 획일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던 권위주의적 가치에서 조금씩 탈피하여 다원화하는 경향을 띄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와 가족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전형적인 상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매우 민주적이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부모 자녀가 대화와 타협이 순조로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세대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을 증폭시켜 더욱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삶의 질적 추구라는 관점에서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가정생활의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고 불안정한 제반 요인을 되도록 배제하여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확립하고 가정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IV. 가족생활설계의 기본관점의 수용

1. 생활의 자립성(自立性)

인간은 태어나 자라고 독립하여 새 가정을 이루고, 다시 자녀를 양육하고 독립시킨 후 일생을 마감하는 보편적인 생애주기를 기내면서 그 가운데 자기 실현을 향한 걸음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생활설계의 기본은 가족원의 삶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신념과 가치관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 서로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적인 삶을 향해 적극적일 수 있다.

2. 생활의 총합성(總合性)

가족생활을 이루는 유형 무형의 생활요소들은 무수히 많고, 이들은 중요한 자원이다. 이들 요소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생활속에서 서로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활이 성립되고 목표가 성취된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설계는 통합적이고 전체론에 근거한 생활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영역들이 의미 있게 파악되고 피이드백되어야 한다. 즉 가족생활설계는 가족생활의 운영원리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생활은 각 부분들이 전체와 조화롭게 설정될 때 더욱 안정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3.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와 적응성(適應性)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정내외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대의 생활환경이고 생활설계는 미래의 자신을 탄력성 있게 준비하기 위한 도전이다. 특히 현대는 산업사회이고 산업사회에서 경제는 생활의 전제 조건이며 개인 혹은 가족원의 생활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경제관리에 대한 계획은 생활설계의 기본이 된다. 또 생활주기의 각 단계마다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생활과제가 있다. 이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마다 건설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현재의 생활은 충실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대처와 적응은 가족생활을 성장시킨다.

4. 생활의 균형성(均衡性)

가족생활의 운영 목적은 가정복지에 있고 가족원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다. 개인 가족원은 자아적 생활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전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가족적인 목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정해야만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공동체로서도 안정될 수 있다.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화폐)와 시간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공동체,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생활의 균형성은 가족생활설계상의 중요한 관점이자 의사결정능력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며 그로부터 목표에 대한 합의와 인정이 생활을 균형있게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의 자립성에서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생활의 총합성에서 생활공동체로서의 복지를, 변화의 적응성에서 미래지향적인 능동적인 삶을, 그리고 생활의 균형에서 조화로운 공존과 발달의 가능성을, 설계의 기본관점으로 할 때 가족생활은 물론 사회적 통합의 토대로서도 단단한 복지적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V. 가족생활설계에 대한 접근

가족생활설계의 의미는 앞으로의 생활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적 의식적 활동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및 가족의 행복한 삶을 실현코자 함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생활요구를 가지며, 그 요구의 본질은 생활주체자가 부족을 느끼는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생활요구는 결국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출발점인 동시에 삶의 목표가 된다. 또한 목표를 세우고 실현코자 하는 생활설계의 출발도 그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생애발달이나 가족발달에 따르는 과업을 수행하므로써 생의 충실감을 가지며, 생활수단으로서의 기본생활구조에서 비롯되는 생활요구가 실현되어야 안정된다. 따라서 설계의 대상은 이들의 통합으로부터 접근함이 타당할 것이다.

1. 가족생활주기면에서의 접근

가족생활주기란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 결혼, 출산, 양육,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생활주기는 특히 가족생활을 통한 인간의 장기적인 면모를 취하는 방법으로 가족생활의 연속성과 과업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한 가족의 주기상 직면하는 문제와 성취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기초가 된다. 특히 근래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단산연령이 낮아지면서 마지막 자녀의 독립은 빨라지고,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의 후반부에 대한 생활상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설계면에서도 주기상의 변화와 함께 여러 측면에서 설계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생활설계면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르는 생활상에 대한 준비와 최선의 방법을 선택 실현하는 노력은 개인과 가족 모두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2. 생활구조면에서의 접근

생활설계의 관점에서 생활구조라는 것은 생활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집합으로 규정해 볼 때, 사람들의 생활은 유형, 무형의 차이는 있으나 일종의 건축물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하나의 건축물이 지붕을 덮고 안온함을 만들어 내는때는 무엇보다 받침으로서의 주요한 몇 개의 기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건축물의 구조를 우리의 생활에 비유해 볼 때 생활을 이루는 기본구조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와 일(직업노동 및 가사노동)의 균형이 생활의 근간을 만든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건강하므로써 일(노동)이 가능하고 일함으로써 얻은 대가 즉 화폐는 생활물자를 공급하여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가능케 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순환고리가 된다. 그렇다면 건강과 노동과 경제, 이들은 생활구조물의 기본이 되는 기둥이자 상호의존된 고리가 되어 균형을 잡아 일으켜 세움으로서 생활체로서의 기본조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다음 생활설계의 과제와 목표를 결정하는 주요한 출발이 된다.

또 생활설계를 위해서 가정생활의 구조를 7가지 측면, 즉 ①건강 ②정신 ③인간관계 ④경제 ⑤생활시간 ⑥생활공간 ⑦생활기술이 결합되어 생활이 영위된다고 보는 이도 있다. (三東純子の 2人, 1983) 이러한 접근도 생활전체를 생각하면서 현위치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며 어떤 생활 style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유익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또는 가정생활기능에 주목하여 주요활동을 행하는 시간구조, 공간구조, 생활수단구조, 가계구조, 역할분담구조, 생활문화구조를 파악하여 생활설계에 접근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전자나 후자 모두는 생활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고, 현실구조를 이상구조에 가깝게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생활설계의 방법

생활설계의 방법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대책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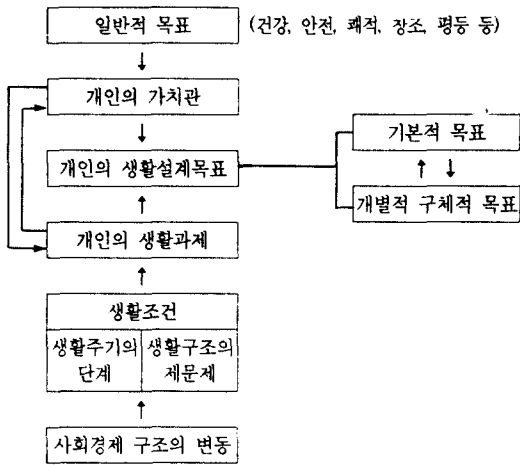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의 가치는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건강, 안전, 공평, 쾌적, 창조, 평화, 사랑, 등을 추구하고 동시에 요구하므로써 보편적인 삶의 기본원리이자 일반적 목표가 된다. 그로부터 개인(가족)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또 미래로 연장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생활설계의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생활주기와 생활구조적 상황과 조건은 생활설계상의 대상 및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그림 1)

이러한 개념적 체계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자주성의 원리
- ② 개인 존엄의 원리
- ③ 총합성의 원리
- ④ 상호작용의 원리
- ⑤ 계속성의 원리
- ⑥ 다양성의 원리
- ⑦ 반성, 평가의 원리

개인 및 가족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크고 작은 과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목표들(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수단, 가계, 가족의 역할 등)을 선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주된 활동이 된다. 그 다음 단계로서 수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 단기적인 계획과 위계적 관계를 체계화하여 목표달성에 접근하려는 일련의 사고과정(思考過程)은 중요한 활동이고, 가족생활을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지적작업(知的作業)이다.

이 때 개인(가족원)과 가족 전체로서의 목표가 조정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 것이 가족생활이다. 특히 현대는 개별화의 성향이 크고 사회 경제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실현되는 데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그림 1〉 생활설계의 목표결정요인

출처: 淺田幸子(1991) 生活設計教育論

있다. 그래서 생활설계는 현재의 삶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VI. 가족생활설계와 Life-style

생활양식은 넓은 의미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방식”으로 총체적인 개념인 동시에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방식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나 특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이 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하여 생활양식은 개인 또는 집단의 통합적 기능을 가지며, 독자성, 창조성, 가치의식, 목표지향성을 의미하고, 각자의 선호와 그것에 상응하는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생활을 능동적, 주체적으로 형성하려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주체가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생활의식과 생활행동의 유형, 또는 생활과제의 해결방법이 생활양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양식은 개인이 개발시키고 지향하는 가치체계와 생활환경(조건)의 관계에서 생활요구를 실현하는 특징 있는 방식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조화적 존재로서의 생활문화의 창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가족생활설계는 생활의 연속성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상을 향해서 현재의 생활을 방황지니 구조화시

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며, 또한 도전 받는 것이라고 하겠다.

생활양식은 특히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 정신과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의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생활요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전환이란 무엇보다 건전한 생활요구에서 비롯되고(생활설계의 대상)그의 실현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제기능과 역할이 함께 어우러 질 때 발전적일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적 생활이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생활을 형성하는 “부분적 전체성”의 성격을 가지며, 통합체로서 역동하는 종합적인 것이다. 기본적 생활체로서의 가정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가정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였고, 그 결과 “행복” “만족도” “복지” “생활의 질”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가정은 개인 및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생활하고, 일하고 경제하는 행동체계로서 가정생활은 인간의 복지와 직접 관련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곳이다. 그러나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상황은 생활의 만족도를 저해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생활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생활설계는 가능한 한 이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향한 생활능력의 강화이며 의도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적 힘이 된다고 하겠다.

VII. 맺는말

인간의 궁극적 가치목표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추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생활은 가장 원초적인 행동체계라고 하겠다. 이 체계에서 개인 및 가족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독자적인 크고 작은 과제들을 선정하여 실현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조정, 통제하며 생애 및 가족발달을 이루어 나아간다. 이 때에 끊임 없이 이루어내는 선택행동에 대한 지지와 통찰력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는 생활주체의 능력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 최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그만큼 생활은 제한된 합리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은 그 한계를 좀 더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반성과 통제력을 발휘하여 조화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가치의 발달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분명한 문제 인식과 해결의 실마리를 취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생활설계는 미래 지향적 삶을 향한 현재의 생활방식을 규정하고 방향 짓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문숙재, 박인숙 외(1996). 「가정경영」, 서울: 학지사.
- 2) 지영숙, 이영호 외(1995). 「생활문화의 이해」,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3) 한국가정관리학연구회(1996).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학지사.
- 4) Arcus M.E., Schvaneveldt J.D., Moss J.J.(1993).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Vol. 1. London: SAGE.
- 5) 今井光映外(1985). 「現代家庭經營學」, 東京: 勁草書房.
- 6) 住田和子, 有馬澄子(1994). 「生活學, 生活經營」, 東京: 建帛社.
- 7) 掘田剛吉外(1991). 「生活設計と家庭科教育」, 東京: 家政教育社.
- 8) 日本家庭學會編(1988). 「生活設計論」, 東京: 朝倉書店.
- 9) 淺田幸子(1991). 「生活設計教育論」. 東京: 明文書房.
- 10) 掘田剛吉, 順田博司(1994). 「女性と生涯學習」, 東京: 家政教育社.
- 11) 岡村益(1983). 「現代家庭の生活設計」, 日本: 文部省社會教育編.
- 12) 吉中哲子 外(1985). 「現代家庭生活設計論」, 東京: 壇內出版社.
- 13) 山本ギグ(1983). 日本: 文部省産業教育 昭和44年度 指導者養成 講義集録 家庭管理編.
- 14) 田辺義一(1968). 「生活設計の考え方管見」, 國民生活研究.
- 15) 三東純子(1993). 「21世紀のライフスタイル」, 東京: 朝倉書店.